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3 ● 3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ACT News

빙하시대 탐사여행

지난 2월 4-6일 새시대 목회자의 목사님들과 함께 첫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새시대 목회자는 지난 해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이어 올해는 빙하시대 탐사여행까지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께서 사실인 성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탐사여행에는 첫째 날 오후에 최우성 박사의 “생명복제”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본국의 광주지부장이신 조정일 교수의 창조신앙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유지는 Red Rock Canyon, Death Valley, Whitney Mt., Alabama Hills, Fossil Falls 였는데 이들 모두가 노아홍수 전기부터 말기뿐 아니라 이어서 일어난 빙하시대까지 순서대로 이해





새시대 목회자, Alabama Hills의 화강암 위에서

하기 최적의 코스입니다. 빙하시대는 누구에게나 큰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통해 엄청난 두께의 빙하와 수많은 매머드 화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탐사여행을 마쳤던 분들께 적극 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교회 순회 세미나

이제만 부회장은 2월 15부터 25일까지 중서부지역 유학생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삼페인 어바나 한인교회(University of Illinois), 퍼듀 한인 장로교회(Purdue University), 앤아버 장로교회(University of Michigan), 랜싱 새소망 침례교회(Michigan State University)를 차례로 순회합니다. 모두가 유학생 교회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했던 교회들입니다. 탐사여행이 교회 세미나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탐사여행의 경유지를 통해 직접 본 것을 정리된 마음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앤아버 장로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깊이 있게 성경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유학기간에 믿음의 근본이 사실 위에 있다는 확신과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뉴욕 순회 세미나

오는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이재만 부회장은 뉴저지-뉴욕 순회 세미나를 갖습니다. 산돌교회, 임마누엘교회, 찬양교회(이상 뉴저지)와 뉴욕 영광장로교회를 차례로 순회합니다. 작년 새시대 목회자 창조과학 탐사여행 때 참석했던 목사님들께서 각 교회에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받았던 감동을 교인들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순회 세미나가 미 동부 지역에 하나님의 창조사실을 알리는 귀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개 교회에서 총 18번의 세미나가 있게 되는데 인도하게 될 이재만 부회장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OPEN 창조과학 탐사여행 1/2

개인적으로 참석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을 위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탐사여행 1 (3/24-26) 서부의 3대 캐년인 그랜드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통해 노아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제한 조건이 많으므로 신청 전에 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213-381-1390; HisArk@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탐사여행 2 (7/17-19) 출발지: LA. 등록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며, 여행지는 세도나, 규화목공원, 그랜드캐년입니다.

새시대 목회자, Fossil Falls에서



유공식품



다윈은 1838년 10월에 “진화론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을 시작한지 십오개월 가량 되었을 때 말더스가 쓴 ‘인구론’이라는 책을 읽고 동식물계에 편만한 생존경쟁을 통해 우월한 종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비로소 내가 앞으로 일해야 될 이론에 관한 확신이 서게 되었다” 라고 했다. 말더스(1766-1834)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급기야 오게 될 식량부족에 집착하여 인류사

회에 독소적인 불안을 결국 조장하게 된 ‘인구론’의 저자다. 이 책에서 그는 식량공급의 부족으로 동물세계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현상이 인간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틀린 전제에서 출발했다. 생태계에는 공급과 수요의 평형이 항상 잘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세계 식량문제는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고 분배의 문제라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바로 인간의 죄 문제이다. 실제로 모든 식량생산은 부단한 연구개발로 말미암아 해마다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품종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유전공학은 농학, 의학, 환경학 및 식품학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삼십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먹는 가공식품 내에 포함된 콩이나 옥수수로부터 만들어 낸 식품은 유전공학에 의하여 생산된 것(Genetically Modified foods)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독자들 중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이따금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GM식품의 생산 반대에 관한 쟁기대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목적에 따라 가축의 선택적인 교배를 하는 역사는 창세기 삼십장의 야곱까지 추적해 볼 수 있다. 식물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없는 수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한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전공학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종자나

가축의 생식세포, 혹은 세균이나 곰팡이의 유전자가 포함된 핵산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결과로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이로 인해 많은 혜택이 있다. 우선 곡식의 질과 추수량이 월등하다. 많은 영양가를 포함한다. 곡식이 가뭄과 추위를 더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잘 견딘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보던 감부기는 이제 볼 수 없다. 따라서 농약을 훨씬 더 적게 쓰게됨으로 환경오염이 그만큼 감소된다. 바 이러스나 잡초제거 약에도 더 잘 견딘다. 그리고 동일한 유전공학 기술을 써서 기름 등으로 오염된 토양이나 물의 정화작업이 가능하다. 의학에서는 이 기술로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을 만든다. 성장 호르몬도 생산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GM 농산물의 대부분은 콩과 옥수수이고 그 나머지는 목화, 카놀라기름이나 감자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반 이상이 유전공학의 혜택을 받은 콩이다. GM식품은 현재까지의 관찰에 의하면 인체에 특수한 알레르기현상을 초래하는 사실 외에는 큰 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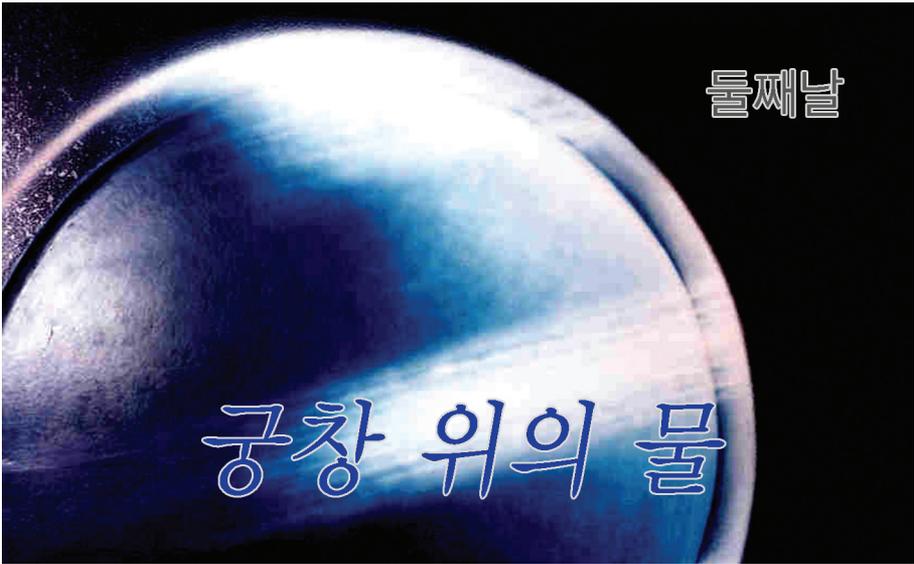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즉, 곡식에 주입시킨 강한 특성들이 주위의 야생 식물들에 전달될 가능성, 그리고 곤충이나 기생충이나 야생식물의 지나친 제거로 인한 예기치 못한 환경에 대한 악영향, 살충제에 대한 병충들의 저항성 증가 등이다. 종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이해하기를, 우리 몸 속에 들어온 단백질이 모두 소화 분해된 후 아미노산으로 흡수되어 몸 안의 핵산의 유전자에 의해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

으로 알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유전자가 오백 개 이상의 다른 단백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과학자가 주입시킨 유전자가 원래 목적했던 단백질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단백질도 만들 때 그 중 어느 하나가 유해한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인(host)세포의 특성에 따라 아미노산이 비정상적인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될 수 있다. 이들 단백질은 몸 안의 정상 단백질을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계속 변형되게 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을 요란하게 했던 광우병과 탄저병 등은 소비대중에게 적지않은 불안과 회의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 병들은 감염성이 있는 단백질(prions)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용의주도한 연구, 감시, 규제 및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레위기 19장 19절의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는 말씀은 동물 종류간의 엄연한 간격으로 말미암아 아예 불가능한 짓을 금하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신명기 22장 9절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다. GM식품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는 시간이 더 지나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선은 에덴동산에서 주신 문화명령과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대할 때 유전공학의 발달로 오는 모든 혜택을 최소한의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최인식
창조과학
선교회 회장,
의사



창세기 1장 (6)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아래 물과 공창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1:7)”

하 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물을 둘로 나누시는 장면이다. 어렵지 않게 아래 물은 셋째 날 한곳으로 모이고(9-10절), 다섯째 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21절)들이 살게 될 바다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공창아래 물이 아니라 언제나 공창 위의 물에 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기권 위에는 그렇다할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창 위의 물에 대하여 창조과학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모델을 제안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바로 덮개효과(Canopy Effect)이다. 덮개효과는 창조 당시에 대기권 위에 물층이 실제 덮개처럼 존재했다는 모델을 말한다. 그리고 이 물은 노아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며”(창 7:11) 모두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덮개효과를 믿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은 그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 수증기 상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여긴다. 수증기라 하면 물이 끓으며 발생하는 뿌연 김이나 안개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아직 액체상태의 물이며 실제로 수증기는 완전한 무색 기체이다.

그런데 이 덮개효과 모델은 성경에 기록된 홍수 이전과 이후의 기록에 대하여 상당히 설득력있는 이해를 제공해준다. 만약 수증기 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면 마치 그린하우스처럼 지구밖에서 오는 빛의 복사열은 통과시키고 반사된 복사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차단시키기 때문에 지구는 골고루 따뜻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다. 또한 성경에서 “추위와 더위” 대하여 창조 당시가 아닌 덮개가 제거된 노아홍수 직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는 점도 덮개효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창 8:22).

덮개효과는 성경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인간의 수명에 대한 문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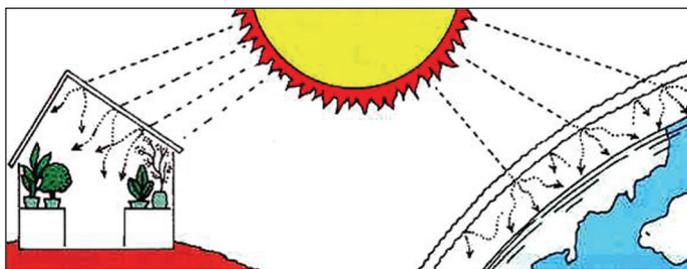
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된다. 성경은 창세기 5장에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았으며 홍수 이후 족보가 기록된 11장부터 나이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즉 홍수를 기점으로 나이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이나 DNA 산화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가 노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물리적 스트레스로는 방사능과 자외선과 같은 단파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단파들은 몸에 해로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수증기 층이 존재했었다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는 훌륭한 보호막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는 홍수 이전에

장양만큼 대규모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 양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의 석탄의 양을 통해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홍수 당시의 수목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울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증기 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을 경우를 상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첫째 날 빛과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신 사이에 둘째 날에 공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만약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공창 위의 물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자외선은 화학작용이 강하므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을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빛의 창조와 식

물의 창조 사이에 이를 완전하게 조화시키는 물 층을 끼워넣으신 것이다.

뎀개효과에 대하여 하나의 모델이므로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



는 지구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을 보여준다. 음식도 수명에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식물들을 먹고 있지만 홍수 이전 사람들은 돌연변이가 거의 없는 훨씬 신선한 음식을 섭취했을 것이다. 앞서 나누었던 홍수 이전에는 가장 적절하게 균일한 온도를 유지했을 것이므로 온도 변화의 스트레스가 적어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노아홍수의 증거로 많이 거론되는 석탄을 보더라도 홍수 이전에 좋았던 환경을 볼 수 있다. 만약 오늘날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일어 나도 탄화된 나무껍질 층인 석탄이 지금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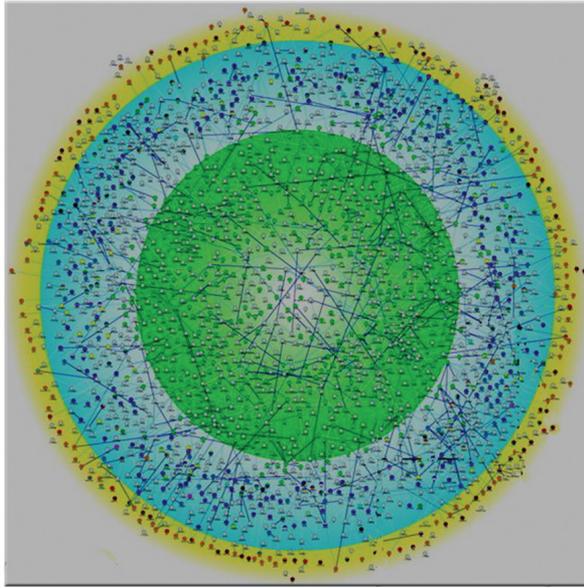
은 성경적 궁극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경은 지금의 지구환경은 창조당시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성귀가 났으며 이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땅을 저주했던 홍수 심판 이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창조당시 지구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았을텐데, 공창 위의 물의 존재는 홍수 이전과 이후의 기록

으로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세포의 부품인 일부 단백질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
노란부분-세포막
파란부분-세포질
녹색부분-핵

창조론 | 초과학

“교회에서 무슨 과학을 가르쳐요?” 하지만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여 주는 과학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므로 다른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바른 과학은 우리에게 진리를 확인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릇된 과학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른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까닭이다. 실제로 그릇된 과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교회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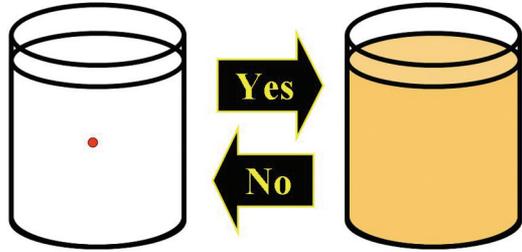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의 교회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의 권위 실추에 따른 믿음의 약화인데 그 이유는 잘못된 과학 이론인 진화론 때문이고 진화론은 지구가 성경대로 수천년이 아니라 수억년이란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입증되지 않은 수억년의 시간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더 나가서 성경 전체의 권위를 잃게 만들었다. 지금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많은 지식인들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고 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과학으로 틀렸다고 증명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은 지식을 축적해

가는 동안 진화론적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생물학의 분야에서도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세포가 지구상에 나타난 과정이라는 화학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고국에 돌아갈 때면 보잉 747 제트 여객기를 타게 되는데 이 비행기는 날아가지 못하는 부품 약 500만 개가 모여 비로소 날아가는 물체가 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비행기의 부품들이 저절로 모여 조립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만큼 작은 우리의 세포 한 개는 무려 수십억 개나 되는 생명체 아닌 화학물질들이 모여 비로소 가장 작은 단위의 생명체인 세포를 이루고 있다. 비행기 부품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부품도 저절로 만들어 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대 과학이 만들 수 없는 부품이 거의 대부분이다. 생명은 저절로(즉, 진화과정으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은 아주 논리적이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최고의 법칙인 열역학 제 2 법칙도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 질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은 저절로 무질서해 지고, 낡아 지고, 닳아 지고, 늙어 지고, 망가진다는 법칙

이다. 세포는 수십억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부품들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서로 잘 맞아야 되고 더구나 그 많은 부품들이 1cc의 1000분의 1 이하의 작은 공간에 질서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가 만들 수도 없는 부품들이 수십억 번 양보하여 저절로 만들어 졌다고 가정해도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면 물에 떨어뜨린 세포는 파괴되어 모든 부품들이 용기 전체에 퍼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조립될 수 없다.

그 부품들을 그 작은 공간에 넣을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모든 부품들을 질서 정연하게 집어 넣어 생명이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법칙은 생명체가 저절로(진화과정으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세상에 수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열역학 제 2 법칙은 이 사실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기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기적은 언제 어떻게 있었는가? 과학이 대답해 줄 수 없는 사실들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 1:11). 창조 주간 3일, 5일, 그리고 제 6일에 그렇게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누가 이 초과학적인 말씀에 토를 달거나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진화론 | 반과학

어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 없이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려면 분자에서 사람이 되는 진화 원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성경적인 창조 세계관을 가지면 과학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주장들은 정말로 웃기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진화론은 과학의 원리들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진화가 사실이라면 과학의 개념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창조 테두리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과학은 우주가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서 일정한 수학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여러 지역의 공간과 시간의 역사 속에서 환경이 많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균일성(uniformity)이 있다. 우주에 그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성공적인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천문학자들은 행성이나 달, 소행성 등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연에 균일성이 없으면 예측도 불가능할 것이고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 진화론의 문제는 그런 규칙성이 성경적인 창조 세계관에서만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요1:3)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창조론자는 우주에 질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히1:3) 창조론자는 우주는 논리적이고 질서 있고,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구나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창조론자는 우주의 전 지역, 심지어 물리적인 환경이 아주 다른 곳에서조차도, 같은 법칙들이 적용될 것을 예상한다. 천문학 전체가 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벧후 3:8) 우리들을 위해 전 시간을 통해 우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다. 따라서 과거의 조건들이 현재나 미래와 상당히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주를 유지하는 방법(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름)은 임의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미래에도 진리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 하셨다. 계절이나 밤낮의 순환 같은 것들이다(창 8:22). 그러므로 신실한 크리스천은 어떤 조건에서 일정한 결과를 기대할 권리가 있는데, 우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크리스천의 원리들은 과학에 필수다.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결과를 예상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예측은 과거 경험을 반영한다”. 과학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일정한 능력에 의한 일정함에 의지해서 예견을 할 수 있다. 균일성이 없다면 과학적인 실험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똑 같은 실험을 하는데 매 번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고 이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성경적인 균일성의 원리와 다른 많은 성경적 원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화론자 과학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더구나 진화를 믿는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균일성의 원리가 도출된 성경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균일성을 받아들인다. 즉, 진화론자들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과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일관성 없음은 세속적 사고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세속 과학자들은 우주가 디자인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주가 디자인 되고 하나님이 일정한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과학을 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성경적인 창조를 가정(예, 균일성)할 때만 과학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진화론의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다.

신실한 크리스천은 과거의 경험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측은 과거 경험을 반영할 것(창 8:22)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자연에 균일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미래의 예측이 과거 경험을 반영해야 합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진화론자들은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가장 흔한 대답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순환 논리다. 과거에는 동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래는 과거를 반영할 것이란 가정 즉 균일성을 이미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근거로 삼을 때 마다 우리는 균일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자가 과거에 균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럴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균일성을 가정함으로써 균일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바로 순환적인 주장이다.

진화론자는, 물질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즉 균일성은 우주의 특성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 대답도 말이 안 된다. 첫째로 이 대답은 질문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니다. 균일성은 우주의 한 성격이지만 질문은 “왜?”이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런 우주의 성질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진화론자가 균일성이 우주의 한 성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어

무작위적인 폭발 과정이 정돈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주장에서는 균일성을 찾을 수 없다.



볼 수 있다. 그들은 기껏해야 과거에 우주는 어떤 균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균일성을 미리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성질이 미래에도 계속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겠는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변한다.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진화론자들은 좀 더 실질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다. “글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균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요.” 이 대답도 두 가지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 첫째, 균일성이 과거에 적용되었던 것 같다는 주장만 가능하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크리스천들만 가정할 수 있는 균일성의 이유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균일성이 미래에도 사실일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균일성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누구도 자연에 균일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요점은 성경적인 창조관으로

만 그 것이 납득되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일관성이 없을 때만 과학을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창조는 부인하면서 성경적인 창조론자의 개념을 가정할 그 때만 가능하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신을 가정하여 크리스천처럼 균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창세기의 창조를 믿지 않고 신이 수백만년의 진화를 통해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창세기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 창세기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아니라면, 창세기 8:22을 그대로 믿을 이유가 없다. 이 구절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균일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적인 창조가 없으면 균일성에 대한 이성적인 근거는 없어지게 된다.

균일성을 납득하는데 아무 신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 된 크리스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일정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만 모든 공간과 시간에 균일성이 있도록 보장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창조론자들만이 자연에 있는 균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진화가 진실이라 해도 그것을 믿을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생명이 진화의 결과라면 진화론자의 두뇌는 단지 수백만년의 무작위 과정들의 결과일 뿐이다. 두뇌는 단지 과거에 살아 남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보존된 화학반응들을 수집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론자들의 모든 생각은 단지 시간을 통해 반응했던 화학 반응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작위 화학반응의 당연한 결과로 “진화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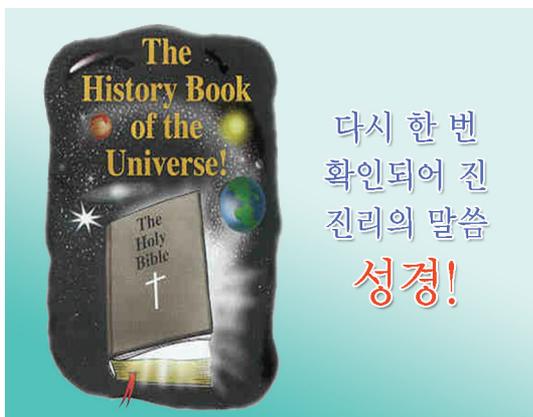
학자들의 분석은 사람의 마음이 화학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하게한다. 합리성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최선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진화론은 합리적인 사고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해치고 있고 결국 지식과 과학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는 반과학이고 반 지식적이다. 진화가 진실이라면 과학은 가능하지 않는데 모든 과학과 기술의 근거가 되는 자연의 일정성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리들의 사고는 생각없는 화학반응의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진화론자들이 과학을 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창조 원리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Jason Lisle, 물리학 박사, AiG 강사

출처:<http://www.answersingenesis.org/articles/am/v3/n1/evolution-anti-science>

창세기가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되어 진
진리의 말씀
성경!

창 조과학을 듣기 전에 창세기는 저에게 단지 여러 신화 중에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운 진화론에 갇혀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비과학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히 창세기의 천지 창조 부분과 노아 홍수를 읽을 때마다 의문과 의혹 속에서 읽게 되니 이것이 사실이

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확신 없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않고 그냥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교회 수련회를 통해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진화론은 과학이며 창조는 신앙적인 믿음이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으며, 따라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말한다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조과학 강의 첫날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과거 중세시대에 카톨릭 교회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과학자들을 탄압하던 일들을 지금 시대에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창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 선교사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그때 선교사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은 저의 진화론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고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창조과학 강의를 들으며 저 역시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창조를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신화를 믿는

믿음도 아니며 강요된 신앙적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증거와 노아 홍수의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증거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설명과 실험을 통한 확인은 진화가 아닌 창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화는 오히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잘못된 판단과 지식에서 나온 오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창조를, 아니 더 나아가 창세기 전반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편견에서 그 증거들을 외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의 편견은 점점 깨어지고 있었고, 창조와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무지하며 교만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 인용된 성경 말씀들이 저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창조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창조과학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저의 시각은 신화나 의심이 아닌 사실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가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없이 창세기가 읽어지며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그러운 나무, 푸른 하늘과 태양,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 아름다운 색깔의 꽃과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은 우연과 시간에 의한 진화의 산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에서 주님의 신비하고, 아름답고, 선하심을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인간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창조를 믿고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진화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깨어나고 창조의 진리를 받아들여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믿음의 혼란을 겪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시애틀형제교회 정태영



새사람(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4:17b, 24)

사역일정

2008년

3/2-5/18 헬로십교회 마하나임청년(12주 특강 매주 11:30AM 이동용 630-400-6114), IL
 3/6 KCC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세미나, 최우성, 951-808-2714), CA
 3/7-8 산돌교회(세미나, 이재만, 973-575-2778), Pine Brook, NJ
 3/9-11 임마누엘 교회(세미나, 이재만, 201-461-5055), Palisades Park, NJ
 3/12-14 찬양교회(세미나, 이재만, 732-805-4050), Somerset, NJ
 3/15-16 뉴욕영광 장로교회(세미나, 이재만, 718-225-3021), Bayside, NY
 3/13 KCC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세미나, 최우성, 951-808-2714), CA
 3/13 실버킬리지(세미나, 이동용, 10:30-11:40am, 630-400-6114), IL
 3/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카고 교회연합 847-845-5368)
 3/28, 30 한양 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818-419-3021), CA

4/4-5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세미나, 이재만), FL
 4/7-9 창조과학 탐사여행(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858-717-0544)
 4/14-6/23 제6기 중부창조과학학교(시카고 한인교회 847-845-5368), IL
 4/28-5/1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425-488-1004)

5/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앨버틴 온누리교회, 949-261-9100)
 5/19-22 창조과학 탐사여행(서울 침례교회, 713-896-9200)
 5/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글로발 선교교회, 213-344-6042)

6/3-5 창조과학 탐사여행(주님의영광교회)
 6/9-12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6/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858-717-0544)
 6/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동양선교교회)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7/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모집, 213-381-1390)

8/4-6 5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213-381-1390)
 8/8-10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8/18-23 창조과학 탐사여행(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월서/앨버틴/샌디에고 온누리교회)

후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